

#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 2명 안타까운 죽음

### 저수지에 뛰어든 선배 구하려다 중3생도 함께 익사 한국 온지 1~3년...사회적인 관심·지원 확대 필요

다문화 대안학교인 새날학교를 다니던 조선족 출신 학생 2명이 학교 뒤 저수지에 빠져 숨졌다.

언어문제로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대안학교로 옮겨가 기숙사 생활을 하던 학생이 고민을 안고 물에 뛰어든 채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구하려다 한꺼번에 익사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과 우리 사회가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홀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외 좋은 학생들, 학교 뒤 저수지서 익사=지난 20일 밤 8시45분께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석문저수지에서 새날학교 A(19·고3)군과 B(16·중3)군이 물에 빠져 있

는 것을 같은 학교 학생 C(19)군과 낚시객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1시간여만에 구조됐지만 모두 숨진 뒤였다. 저수지 독에선 A군이 마신 것으로 보이는 맥주캔과 트지도 않은 소주 1병이 발견됐다.

앞서 A군은 오후 7시30분께 친구들에게 "기분이 좋지 않다. 운동장이나 돌아오겠다"며 학교를 빠져나갔다. 30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자 같은 방을 쓰며 친하게 지내던 B군이 찾아나섰고, 저수지 옆에서 둘은 한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그러던 중 "행이 이상하다, 빨리 좀 와달라"는 B군의 연락을 받고 학교에 있던 C군 등 학생 3명이 5분거리의 저수지로 달

러가보니, A군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A군을 붙잡으며 구하려던 B군도 함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에 뚜렷한 외상도 없고 학교 폭력 등 학교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문화 대안학교 관심 부족함 없었나=사고가 난 저수지와 400m거리에 있는 새날학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11개국에서 한국으로 온 학생 75명이 수업을 받는 곳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초·중·고 과정의 수업이 한 학교에서 이뤄진다. 시교육청 예산 7억원과 각종 기관과 단체가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이 학교 학생들은 언어 등의 이유로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적응에 실패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다. 3년 전 중국에서 건너온 A군, 1년여 전 한국에 온 B군 모두 한국말에 서툴고 같은 조선족

출신이라서 늘 붙어다니며 친하게 지냈다.

A군은 특히 한국어를 거의 못해 평소에도 교사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였다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고민이 있어도 이를 상담할 교사가 없었다는 얘기에 대해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 11개 국적, 75명의 다문화 학생을 돌보고 가르치는 학교 교사 20여명의 급여 등 처우 개선도 고민해 볼 부분이다. 일반 학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처우여서 학생들 관리에 소홀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변을 당한 A군은 법적으로 술을 구입할 수 있는 나이여서 학교측 관리 소홀을 문제삼기엔 무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교직원 처우가 일반 학교보다 현저히 낮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임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학생 관리 차원에서 학교 운영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좌익효수” 필명 국정원 직원 무죄 유감

### 윤민호 옛 통진당 시당위원장 “사법부 부끄러운 민낯” 비판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증오 댓글’ 작성을 일삼은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고발인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윤민호 옛 통진당 시당위원장 시당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권력의 시녀로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위원장은 “2013년 7월 당시 오병훈 의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 지 2년 9개월 만에 이뤄진 결과”라며 “모두가 예상치 못한 바닷길 바닷길만 모두의 예상은 적중했다”고 논평했다.

그는 “피고인이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와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

며 선거개입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판단과 관련, “평소에 난폭운전을 했다던 경찰관에게 들켜도 법규 위반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이창경 판사는 이날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을 비하하는 글도 올렸지만 검찰은 특정 구성원을 지칭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조선업 불황에 ... 회사 부도로 직장 잃은 직원 자살

“후세에는 엄마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

조선업계가 사상 최악의 불황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부도로 직장을 잃은 조선업 협력업체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20분께 A(37)씨가 북구 어머니(59)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광양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A씨는 2달 전 회사 부도로 실업자가 됐다. 실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광주 어머니의 집에서 용돈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허리 통증 등이 악화하면서 이마저도 여의지 않았다. A씨는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샌딩 작업을 했으며, 작업 중 허리를 다친 것

으로 알려졌다. 샌딩 작업은 모래나 쇠조각을 고압으로 분사해 선박의 철판 표면을 벗겨내는 작업이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아들이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힘들어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여러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에서는 자신을 발견하면 어머니에게 연락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후세에 엄마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동안 엄마한테 받아왔던 사랑 이상을 배풀게요. 미안해요”라고 적힌 유서 형식의 쪽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119구조대원들이 2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치동 모 종교시설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인부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박준영 당선인 회계책임자 소환 조사

검찰이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영암·무안·신안)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를 불러 조사중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정치권에 오래 몸담아온 회계 책임자가 오늘 검찰에 출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소환에 앞서 박 당선인의 측근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하

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말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구속중)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혐의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영산대교서 30대 남성 투신 경찰·소방당국 수색 나서

나주 영산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투신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21일 나주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8분께 나주시 삼영동 영산대교에서 한 남성이 강물로 뛰어내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19구조대와 함께 수색을 벌였지만, 투신자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수색을 통해 조모(34)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son@

## 신축공사 현장 천장 무너져 인부 2명 매몰됐다 구조

광주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2명이 파묻혔다가 구조됐다.

21일 오후 4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모 종교시설 건설 현장에서 4층 천장 철제구조물(면적 70㎡)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인부 박모(49), 정모(28)씨 등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씨 등은 다리와 가슴에 충격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조선대 공대 실험실 화재 학생들 진화...인명피해 없어

21일 오후 2시35분께 광주시 동구 조선대 공과대학 건물 실험실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불은 실험실 기자재와 벽면 일부를 태웠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실험실에 있던 학생들이 소화기로 골장 진화해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화학물질로 실험을 하던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생과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교통사고 내고 사라져 연락두절

○개그맨 이창명(47)이 음주 운전자로 의심되는 빗길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중.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밤 1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자신의 포르세 차량으로 횡단 보도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매

니저에게 연락해 사고 수습을 맡기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 음주 측정을 위해 이씨에게 계속 연락하고 집에도 찾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입장이지만 이창명 소속사측은 “음주운전은 사실이 아니며 경찰조사도 받을 예정”이라고 해명.

/연합뉴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간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NPL 물건		
NO	사건번호	물건
1	광주 2015타경 11371	모델
2	광주 2015타경 17416	근린상가
3	순천 2015타경 14423	근린생활주택
4	목포 2015타경 1551	오피스텔(주거)
5	목포 2015타경 8910[1][2]	단독주택
6	순천 2014타경 9356	근린상가
7	순천 2015타경 14058	근린상가
8	순천 2015타경 15976	근린생활주택
9	목포 2015타경 10570 [1][2][3]	근린상가
10	목포 2015타경 9821	근린상가
11	목포 2015타경 12278	아파트

믿음이라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